

協同으로써 發展의 길을



出協會長 韓 萬 年

代讀하는 副會長

第24次 韓國圖書館協會 定期總會에 불러주시고 더구나 出版界를 代表하여 祝賀의 말씀을 드리게 된것을 榮光으로 생각합니다.

貴協會가 發足한 以來 오랜 세월에 開拓과 定着에의 길을 모색하며 오늘의 基盤을 갖기까지 圖書館界人士 여러 분께서는 우리 國民의 知識의 管理者로서 그 艱難 隘路를 克服하여 오신 사실에 우리 出版界는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더구나 舊態依然한 圖書館法의 테두리안에서 어려운 發展을 모색해 온 사실 또 專門職으로서의 司書의 處遇가 아직도 改善되지 못하고 있는 等等의 애달픈 狀態下에서 進一步의 向上을 도모하고 있다는 것은 모든 圖書館界人士들의 투철한 使命感에 立脚한 꾸준한 인내의 結果라 믿어 이 點 各별히 여러분들을 존경하는 바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같은 忍耐를 바탕으로 當局과 一般의 覺醒이 하루 빨리 새로와지도록 加一層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며 저희 出版界에서는 이에 微力이나마 協助를 아끼지 않으려고 생각합니다.

우리 出版界는 再昨年부터 圖書發行種數가 萬餘種을 돌파하여 世界의 20餘 上順位圈 出版國의 대열에 끼이게 되어 國內外로 韓國出版文化를 과시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一次的으로는 물론 저희 出版界 스스로의 努力의 結果라고 自負하지만 이의 配布·選定·管理·讀書指導의 過程을 맡으신 圖書館界 여러분의 功이 큰 것으로 믿어 誠摯한 謝意를 表합니다.

圖書館界와 出版界는 서로 떨어져 生存할 수 없는 共生共存의 관계이므로 항상 協同해야할 일들이 많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보는 部分的인 견해로서도 圖書館法의 現實的인 改正이라든가 司書職의 處遇改善 其他 各級 圖書館의 시설확장과 더불어 自信있게 권장할 수 있는 良書의 選定 等等 저희 出版界도 적극 관여하여 推進을 같이할 수 있는 問題들이 많다고 봅니다.

아무쪼록 오늘의 總會가 이러한 圖書館界의 懸案問題들이 希望하시는데로 잘 풀려나가는 실마리가 되어지기를 바라며 아울러 그렇게 이루어지리라고 믿습니다.

끝으로 이 자리에서 受賞하게 되시는 第10回 韓國圖書館賞 受賞者 여러분에게 祝賀의 뜻을 표하며 여러분의 健闘와 圖書館界의 發展을 祝願드립니다.